

BK21

본 연구는 Kohlberg의 도덕판단 이론에 기초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는 고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지적 도덕판단과 실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딜레마에 대한 도덕 판단 및 행동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자들은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연구 대상자들이 직접 경험한 도덕적 딜레마는 무엇이며 그 상황에서 선택한 행동과 그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또 그 판단 및 행동의 근거는 Kohlberg의 표준화된 가상적 딜레마 3가지(Form A)를 통하여 측정된 그들의 인지적 도덕 판단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추론해 보았다. 그 결과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들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딜레마상황에서의 판단 및 행동은 Kohlberg의 이론에 기초하여 측정된 그들의 인지적 도덕판단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판단 수준 외에도 정서적 측면이나 심리적 안정, 충동 등, Kohlberg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요인들 역시 그들의 도덕적 판단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어: 콜버그, 도덕판단, 도덕행동, 도덕적 딜레마, 학교생활 부적응

사람은 청소년기에 신체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급격한 변화를 거치며 개인의 내부 및 외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발달과업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및 발달 과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절한

적응기제들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많은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 문제를 겪게 된다. 특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의 적응 문제는 현재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에 이르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 부적응이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행동특성이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부적합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학교의 교육적 가치, 규범 및 질서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대인관계나 주변 환경에 대한 개인의 행동양식이 불균형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김기태, 류기형, 최선화, 최송식, 최인숙, 조덕자, 박봉관, 서덕웅, 오홍숙, 양주근 1996). 이렇듯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은 이후 학교제도를 이탈해 나가기가 쉽고 그 일탈 과정 등에서 학원폭력이나 비행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Masten과 Coastworth (1998)는 그들의 연구에서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소년들은 그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나 분노를 느끼며 이는 반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교사나 건전한 또래로부터 거부당하여 빗나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도덕성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포함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심리학에서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도덕성에 관한 연구 중 상당수는 도덕판단에 관한 연구들이며 이 연구들은 도덕판단과

도덕행동간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인지발달론자들의 기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덕판단 발달에 있어서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Kohlberg는 인지발달론적 관점에서 도덕발달 단계를 크게 3가지 수준-전관습적, 관습적, 후관습적 수준-으로 나누고 각 수준마다 2단계씩, 총 6단계-처벌과 복종의 단계, 도구적 상대주의 단계, 착한 소년소녀 단계, 법과 질서유지 단계, 사회적 계약단계, 보편적 윤리단계-의 도덕발달 단계를 설정하였다.¹⁾ 그는 각 단계에 속한 개인은 다양한 내용과 상황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관된 도덕발달 단계를 보이며 이는 도덕 발달이 인지발달의 전체적인 구조(holistic structure) 속에 통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3단계에 속하는 개인은 가상적 상황이건 실생활에서 직접 부딪힌 상황이건, 또는 본인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얹혀 있는 상황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3단계의 특징을 보이는 도덕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Kohlberg는 가상적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표준화하여 그 표준화된 딜레마에 대한 개인들의 추론 반응을 통해 그들의 도덕발달 단계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발달단계가 그들의 실제적인 도덕 수준을 나타내며 그들의 도덕발달 수준은 곧 그들의 도덕적 행동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도덕발달 단계 외에 Kohlberg의 도덕판단 측정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개념은 바로 도덕지향(moral orientation)이다. 도덕 지향이란 도덕적 영역을 구분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일

1)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관계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국내의 논문 및 서적(예: 김민남 외 역.(2001). 도덕발달의 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등을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

반적인 틀이나 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 규범적 질서 유지 지향(the orientation of upholding normative order)은 합법과 규칙에서 유래된 의무와 정의에 따른 판단을 의미한다. 둘째 이기적 결과 지향(the orientation of egoistic consequences)은 행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보상 및 처벌의 정도 또는 자신에 대한 평판에 따른 판단을 의미한다. 셋째 공리적 결과에 따른 판단(the orientation of utilitarian consequences)은 자신이나 타인, 또는 양쪽 모두의 이해득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 공리적 결과 지향은 이기적 결과 지향을 포함하기도 한다. 넷째 이상적 또는 조화 기여적 결과 지향(the orientation of ideal or harmony-serving consequences)은 타인의 승인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양심, 동기, 존엄과 자율, 덕행 및 타인과의 조화를 지향하는 판단으로 정의되어 진다. 다섯째 공정성 지향(the orientation of fairness)은 자유, 평등, 공평, 계약 등을 지향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이다.

죽어가는 아내를 위해 약을 훔친 남편에 대한 판단을 예로 들면, 약을 훔쳐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언급하는 것은 규범적 지향에 해당한다. 반면에 이후 아내가 남편에게 은혜를 갚을 수도 있다거나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남편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라는 식의 이유를 듣다면 이는 이기적 결과 지향에 속한다. 공리적 결과 지향은 어린 자식들을 돌보아야 한다거나 아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가 속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식의 진술을 포함하며 양심의 가책이나 생명의 존엄성을 언급한다면 이는 이상적 결과 지향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에 합의된 법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사회적 계약에 앞서는 생명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한 언급은 공정성 결과 지향에 해당한다.

Kohlberg는 도덕발달 단계가 사고구조를, 도덕지향은 사고내용을 각각 의미하며 도덕발달 단계와 도덕지향은 개념적으로 서로 독립적이라 가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도덕지향의 사용이 도덕발달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발달단계에서 골고루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Kohlberg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여기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들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첫째로는 도덕지향과 관련된 것으로 후속 연구들(예, Baek, 1999; Tappan, Kohlberg, Schrader, Higgins, Armon, & Lei, 1987; Walker, 1989)은 도덕발달 단계와 도덕지향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Kohlberg의 주장과 달리 이 둘 간에 다소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학생 3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백혜정, 이순묵, 2002)에서는 도덕지향 사용에 있어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집단과 일반학생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적응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발달단계가 낮을 뿐 아니라 이기적 결과 지향을 더 많이 사용하며 여학생의 경우 일반 학생들은 부적응 학생에 비해 이상적 결과 및 공정성 지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덕발달단계가 낮을수록 규범적 질서 유지, 이기적 결과, 공리적 결과 지향을, 도덕발달 단계가 높을수록 이상적 결

과 및 공정성 지향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예, Walker, 1989)를 부분적이나마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Kohlberg의 표준화된 딜레마 사용에 관한 비판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Kohlberg의 표준화된 가상적 딜레마가 측정대상자들과 친숙하지 않거나 무관한 주제들로 이루어져 그들로 하여금 동일시나 정서적 관여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덕발달 단계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Baumrind, 1978, 1986; Gilligan, 1982). 그 중 Baumrind(1978)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측정 대상자들과 친숙한 사회적 상황을 제시한 후 도덕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자들(예, Gilligan & Belenky, 1980; Higgins, Power & Kohlberg, 1984; Kohlberg, Scarf & Hickey, 1971)은 표준화된 딜레마와 연구 대상자들의 실제 환경과 관련된 딜레마를 제시하고 각 딜레마에 대한 도덕 발달 수준을 측정한 결과, 발달단계에 있어서 딜레마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Walker, de Vries & Trevethan(1987)은 위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딜레마들이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딜레마임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이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80쌍의 부모-자녀들, 총 24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딜레마를 사용하여 측정한 도덕발달 단계와 Kohlberg의 표준화된 딜레마를 사용하여 측정한 도덕발달 단계를 비교하였다. 두 경우에서 산출된 발달수준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실생활 딜레마를 사용했을 경우보다 표준화된 딜레마를 사용했을 경

우에서 참가자들의 발달수준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자(91.3%)들은 딜레마의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수준의 단계를 보여주었다($r=.83$). Walker와 Moran(1991)은 52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9점 척도 발달단계(1, 1/2, 2, 2/3..단계)에서 약 92%가 같거나 인접한 수준의 발달단계를 보여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참가자의 50%가 같은 수준의 발달단계를 보였으며 39.6%는 표준화된 딜레마에서, 10.4%는 실생활 딜레마에서 높은 수준의 발달단계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들을 종합하여 통계 처리한 결과, 실생활 딜레마를 사용했을 때보다 표준화 딜레마를 사용했을 경우 개인의 도덕발달 수준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Walker와 그의 동료들은 Kohlberg의 표준화된 딜레마가 개인의 도덕발달 단계의 최고 수준을 끌어내는데 적당하며 도덕발달 단계가 전체적인 구조(holistic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는 Kohlberg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연구들은 딜레마의 유형에 따라 도덕발달 단계를 비교한 결과 다소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유형에서의 발달단계가 다른 유형의 것보다 높거나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대부분 인접한 수준의 발달단계의 판단을 함으로써 적어도 도덕발달 단계가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지지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발달 수준을 측정하는데 Kohlberg의 표준화 딜레마 사용이 그리 부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한 개인의 도덕발달 수준과

그의 실제 도덕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로 주로 비행청소년이나 범법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대표적으로 Blasi(1980)는 그의 개관논문에서 11편의 연구 중 9편에서 도덕발달 수준이 낮을수록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산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도덕발달 수준과 비행행동간의 관계는 이후 몇 편의 경험적 연구(예, Gregg, Gibbs & Basinger, 1994)와 메타분석(예, Nelson, Smith, & Dodd, 1990)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네덜란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De May, 1994, Travecchio, Stams, Brugman & Thommer-Bouwens, 1999에서 재인용) 일반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도덕발달 수준이 3단계에 속하는 반면 비행청소년들은 대부분 2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발달단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Kohlberg에 의해 정의된 2, 3단계의 판단 특징과 그와 연관된 다양한 해석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Colby & Kohlberg, 1987). 2단계에서는 사람들 각자가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며 그 이해관계들은 서로 대립될 수 있음을 깨닫고 따라서 공정성, 상보성 및 분배의 평등성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정의나 관용보다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구체적 이익을 더 많이 고려하는 등 구체적 교환을 통한 거래가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특징을 가지는 도구적 상대주의 단계라 할 수 있다. 한편 문용린(1992)은 2단계의 비도덕적 행동의 원인에 대해 이 단계의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즉 2단계는 이기적 욕구와 이득 때문에 비도덕적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단계로 개인은 상대방

이 당할 괴로움이나 아픔을 고려하지 못한 채 자신의 쾌락이나 욕구충족에만 몰두하여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른다고 한다. 한 예로 유홍비 마련을 위한 단순 폭행이나 강도짓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위와 연관하여 Thornton & Reid(1982)는 2단계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비행행동을 하는 경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믿을 때만으로 한정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2단계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어린 아동들이 같은 단계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과 달리 비행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욕구가 아직 약하고 물리적 능력이 부족하며 청소년에 비해 비교적 어른의 엄격한 보호와 감독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Travecchio et al., 1999).

3단계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동조하며 타인을 기쁘게 하거나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이 단계에 있는 개인은 개인적 이해관계보다는 타인들과 서로 공유된 감정, 협약 및 기대가 우위에 있음을 깨닫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다양한 관점들을 서로 연관시킨다. 따라서 이 단계는 대인간 조화 또는 착한 소년-소녀 지향 단계로 일컬어진다. 문용린(1992)은 3단계에서는 친애주의로 인하여 비행을 저지른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이 단계에서 비도덕적 행위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로 여러 가지 도덕 덕목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할 때 그것들을 제대로 “교통정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단계에 속한 예로, 친한 친구를 돋기 위해 도둑질을 하는 경우나 자신이 속한 또래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들 들 수 있다. 비행행동을 하는 청소년들 중에는 3단계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으며(Smetana, 1990) 그 이유에 대해 Gibbs와 그의 동료들은 (Gibbs, Basinger, & Fuller, 1992) 행동통제능력을 들고 있다. 즉 행동통제능력은 도덕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도덕발달 3단계에서는 이 능력이 외부적 통제에서 내부적 통제로 변환되는 시기로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동통제능력은 4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국내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일수록 도덕발달 단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발달 수준과 도덕행동간에 연관이 있다는 Kohlberg의 주장을 입증하였다(박병희, 장경준, 신지용, 1996; 백혜정, 이순묵, 2002; 정향인, 1989). 한 예로 백혜정, 이순묵(2002)은 35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Kohlberg의 가상적 딜레마를 이용하여 그들의 도덕판단을 측정한 연구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은 2/3단계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3/4단계에 가까운 점수를 보여 두 집단간에 약 1단계 정도의 차이가 남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부적응 청소년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이익이나 기회주의적 사고에 따른 판단(2단계)과 자신에 대한 중요한 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판단(3단계)이 혼재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덕지향 사용에서도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전자의 경우는 후자에 비해 이기적 결과 지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들이 2단계적 도덕판단을 하고 있음을 부분적으로나마 뒷받침해주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위의 연구들이 인지적 도덕발달 수준과 실제적 도덕행동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도덕발달 수준(인지적 사고)만으로 도덕행동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으며 그 외에도 도덕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Smetana, 1990). 도덕발달 수준 외에 도덕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는 행동통제능력 및 정서적 안정(문은식, 김충희, 2002, Gibbs 외 1992;), 공감능력(Eisenberg & Miller, 1987), 사회적 관계의 질(Tavacchio 외, 1999) 등을 들 수 있다. Gibbs와 그의 동료들(1992)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은 행동통제능력을 도덕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였다. 이와 연관지어 문은식, 김충희(2002)는 중·고등학생 76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의 심리적 안녕, 즉 정서 상태 정도 및 충동에 따른 행동통제 정도가 학교생활 적응 행동과 정적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정서상태가 불안정하거나 행동통제능력이 부족한 경우 학교생활에 부적응할 뿐 아니라 도덕판단 및 행동에도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추론 할 수 있다. Tavecchio와 그의 동료들(1999)은 162명의 18-20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낮은 수준의 발달단계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발달단계를 보인 청년들 역시 비행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보고하며 높은 발달수준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그 원인으로 안정된 사회적 관계의 부족, 도덕적 내재화의 결핍, 정서와 인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들고 있다.

또한 Hoffman(1976)은 Kohlberg가 도덕판단에 있어서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이 함

께 작용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인지적 측면을 더 강조하였던 것과 달리 도덕적 사고 및 행동에 있어서 인간의 도덕 정서, 특히 공감의 작용에 주목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는 공감이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때로는 격렬하게, 상대방의 정서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친사회적 또는 이타적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동기화의 토대임을 주장하였다. 즉 한 개인이 괴로워하는 타인에 대해 공감적 반응을 보이는 과정에서 죄의식이 생기고 그 결과로 도덕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사고(인지) 그 자체가 도덕 행동을 촉발할 수는 없으며 도덕 정서, 즉 공감이 개입되어야만 비로소 도덕 행동이 표출될 것이라는 Hoffman의 기본 입장은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실제로 Eisenberg 와 Miller(1987)는 개관 연구를 통해 공감과 도덕행동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이 제기되었다.

- 1: 부적응 청소년들의 도덕발달 수준은 어떠한가?
- 2: 부적응 청소년들의 도덕지향 사용 경향은 어떠한가?
- 3: 부적응 청소년들이 실제 경험한 딜레마의 내용은 무엇인가?
- 4: 가상적 딜레마를 사용하여 측정된 도덕 판단과 실제 경험한 딜레마에 대한 도덕 판단 및 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5: 실제 경험한 딜레마에 대한 도덕판단 및 행동에는 인지적 사고(발달 단계) 외에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Kohlberg의 표준화된 딜레마를 사용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도덕발달 단계 및 지향을 측정함과 동시에 그들이 실제 경험한 딜레마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들의 도덕판단 및 행동에 대한 보다 실제적이고 심도있는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으로 분류된 2학년 학생 25명(남자 15명, 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들은 서론에서 언급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그중 특히 외현적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로 제한하였다. 그들은 해당학교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선발된 학생들로 무단결석 · 조퇴 · 지각 및 교칙 위반 등의 문제를 한 학기 이상 지속적으로 보여 학교 내에서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DSM- 에 나타난 품행장애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가벼운 정도의 품행장애를 겪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가정형편을 중층 또는 중하류층(각각 15명과 2명)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중상류와 하류층에 속한다고 지각한 이들(각각 1명과 2명)도 있었다. 또한 참가자들의 학업성적은 학급에서의 평균 등수를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 중간 이하

에 속했으며 중상에 속하는 이들은 2명이었다.

측정 도구 및 절차

모든 자료 수집은 참가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 상담실에서 일대일 개인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일인당 면접시간은 평균 45분이 소요되었으며 면접내용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이후 채점을 위해 전사되었다.

면접은 크게 가상적 딜레마와 실생활 딜레마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가상적 딜레마에서의 도덕판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Kohlberg의 가상적 딜레마 3가지(하인즈 딜레마, 경찰관의 딜레마, 소년의 딜레마: Form A, Colby와 Kohlberg, 1987)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딜레마는 Baek(1999)의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화폐단위 등이 한국식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원어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였다. 가상적 딜레마와 연관된 질문은 Kohlberg 요강(Colby와 Kohlberg, 1987)에 나와 있는 표준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자발적인 답변을 바탕으로 각 개인의 도덕발달 단계와 도덕지향을 채점하였다. 채점 방식 역시 요강에 나와 있는 방식을 따랐다. 발달 단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응답 중 채점 가능한 모든 응답들을 해당 단계에 따라 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각 추정된 발달 단계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점수를 WAS(weighted average scores: 가중평균점수)라고 하며 이 점

수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 발달단계(gobal stage)가 계산되었다. 전체 발달단계 산출에서는 마지막 6단계를 제외한 9단계 척도(1, 1/2, 2, 2/3, 3, 3/4, 4, 4/5, 5)가 사용되었다. 1/2, 2/3, 3/4, 4/5 단계는 각각 앞뒤의 숫자가 나타내는 단계들 사이의 중간단계를 의미한다. 도덕지향 측정을 위해서도 역시 응답된 내용 중 요강에 나타난 기준에 부합되는 내용만을 우선 추려낸 후 그 요강 기준에 따라 5가지 지향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각 지향 별로 언급된 총 횟수를 계산하였다.

발달단계 및 도덕지향에 대한 채점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두 채점자²⁾가 독립적으로 채점한 내용에 대해 채점자간 일치도(Cohen의 kappa, SPSS 10.0 for windows)를 측정하였다. 즉 첫 번째 채점자가 채점한 내용 중 무작위로 20개를 선정하여 첫 번째 채점자의 채점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채점자에게 다시 채점하도록 한 후 두 채점자간의 일치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발달단계에 대한 두 채점자간의 일치도 kappa는 .65로, 도덕지향에 대한 일치도 kappa는 .70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생활 딜레마에서의 도덕 판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회상하여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실생활 딜레마와 관련된 주질문은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그 갈등 상황과 그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한 행동 및 그 선택 원인 등을 포함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딜레마 상황의 내용 부분과 그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한 행

2) 제 1 채점자는 Kohlberg 도덕성 발달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쓴 자이며 제 2 채점자는 도덕성 발달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 두 사람 모두 Kohlberg의 도덕발달단계채점에 대한 훈련을 받고 실제 채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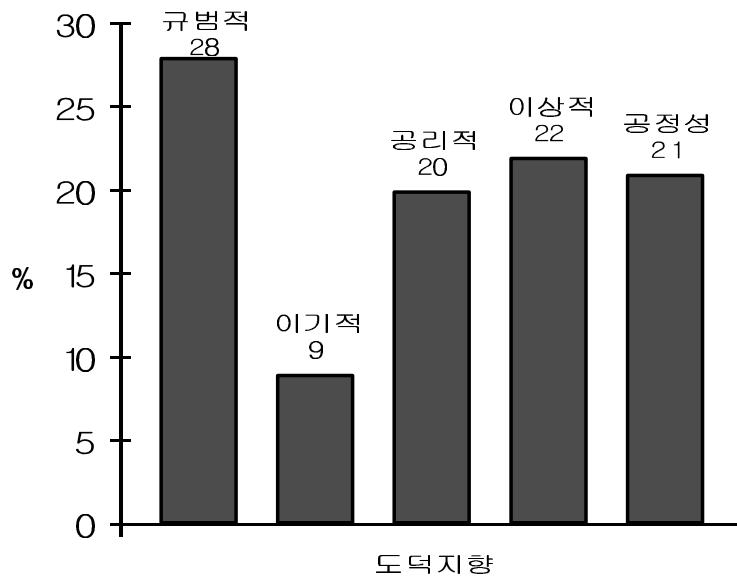


그림 1. 도덕지향의 사용 비율

동의 근거 부분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두 부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녹음된 면접학생들의 이야기를 전사한 후 읽고 의미 있는 단어, 절, 구를 찾아 밑줄을 긋고 그 중 같은 의미끼리 묶어 분류해 나가면서 공통요소를 찾아내었다. 다음으로 자료 범주를 형성하고 여러 범주를 보다 높은 수준의 범주로 묶어 갔다. 각 범주를 명명하기 위해서는 Kohlberg의 도덕성 측정 요강 및 기타 문헌(eg., Walker et al., 1987; Walker & Moran, 1991)을 참고로 하였다. 이렇게 범주화되고 명명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두 명의 채점자 모두로부터 동의를

얻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했다.

표준화된 딜레마를 사용하여 측정된 도덕 발달 단계 및 도덕지향

Kohlberg의 가상적 딜레마를 사용하여 도덕 발달 단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도덕발달 단계의 WAS(weighted average score; 가중 평균점수) 평균은 280점(표준편차 17)으로 이는 관습적 수준에 속하는 3단계에 해당하는 점수라 할 수 있다.³⁾ 전체 발달단계

3) WAS는 전체적인 도덕발달 단계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계산되는 점수로 각 딜레마마다 선택된 주제(chosen issue)와 선택되지 않은 주제(nonchosen issue)에서 채점된 단계와 추정 단계 점수(guess scores)에 각각 할당된 가중치를 주고 각 단계별 가중치를 계산 한 후 전체 점수 중 25%가 넘어가는 단계를 각 개인의 전체적인 도덕발달 단계로 가정한다. 만약 한 개인의 2단계와 3단계가 모두 25%가 넘을 경우 그 개인의 발달단계는 2/3단계가 된다. 각 단계별 WAS의 점수분포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WAS 분포는 279-307점이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lobal stage)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모두 2/3단계 또는 3단계의 도덕발달 수준을 보였으며 2단계의 발달 수준을 보이는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각 단계별로는 2/3단계에 8명, 3단계에 17명으로 3단계에 속하는 학생의 수가 훨씬 많았다.

도덕 지향의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다섯 가지 지향 중 이기적 결과 지향이 9%로 가장 적게 사용되었고 나머지 지향들은 모두 20-28% 사이에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사용되었다(그림 1). 각 지향별 사용 횟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규범적 질서 유지 지향은 3.24회(표준편차 .88)로 역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공정성 지향($M=2.40$, $SD=1.29$), 이상적 결과 지향($M=2.48$,

$SD=1.08$), 공리적 결과 지향($M=2.32$, $SD=1.21$)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이기적 결과 지향 사용 횟수 평균은 1.04(.9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실제 경험한 딜레마에 대한 도덕 판단

딜레마 상황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분석한 결과 그들이 직접 경험한 딜레마 상황은 크게 네 가지 장면으로 나뉘어 질 수 있으며 각 장면들은 교우관계, 가정생활, 학교생활 및 아르바이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한 장면에서만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두 장면 이상이 서로 부딪히며 딜레마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분류된 각

표 1. 실제 경험한 딜레마 상황의 분류 및 주 내용

딜레마 상황	주 내용
가정생활 (8)	부모의 이혼을 찬성할 것인가,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한 이후 다시 집에 들어갈 것인가, 명절에 가족을 따라 귀향할 것인가, 내 욕구를 누르고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내 욕구를 누를 것인가.
학교생활(4)	무단결석을 할 것인가, 학교를 중퇴할 것인가
친구 vs 부모(4)	몸이 불편한 어머니 또는 술 취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친구와의 만남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가족 행사와 친구와의 약속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교우 관계 (3)	친구들과의 중복된 약속 중 무엇을 지킬 것인가, 두 명의 이성친구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부모 vs 아르바이트 (2)	부모가 반대하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것인가.
학업 vs 아르바이트 (1)	학업과 아르바이트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르바이트 (1)	아르바이트로 번 용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타(2)	등교 길에 만난 낯선 또래가 시비를 걸어 왔을 때 싸울 것인가, 기념일과 일반 약속 중 무엇을 지킬 것인가.

() 안은 사례 수

Kohlberg의 요강(Colby & Kohlberg, 1987)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표 2. 실제 경험한 딜레마 상황에서의 선택 근거

선택근거	공통요인
불이익 회피와 이익으로의 접근 (7)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취하고 불이익이 되는 것은 피한다.
상호호혜 (5)	나에게 잘 대해주거나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야 한다.
심리적 안정 (4)	양심에 따라 또는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결정한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배려 (3)	상대방이 불쌍하거나 안됐다는 등의 생각이 들어 그의 요구를 들어준다.
충동 (4)	선택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한다.
기타 (1)	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으로 사례수가 드물다.

()안은 사례 수

범주별로 살펴보면 가정에서 부딪힌 딜레마 상황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생활에서의 딜레마 경험 및 친구와 부모의 각기 다른 요구에 따른 갈등 상황으로 각 4 사례씩 보고 되었다. 그 다음으로 교우관계에서의 딜레마 상황은 3건, 아르바이트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딜레마는 2건, 아르바이트와 학교생활, 아르바이트 상황에서 겪은 딜레마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위의 상황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 2건은 기타로 분류되었다. 좀 더 구체적인 갈등 상황에 대한 묘사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딜레마 상황에서의 선택 근거

위의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서 학생들은 모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선택을 하였으며 총 25사례 중 한 사례(기념일 vs 일반약속 사례)는 딜레마 상황에서의 선택 이유 등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선택 근거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사례들은 그 선택 이유를 분석하여 공통 요인에 따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각 불이익 회피와 이익으로의 접근, 상호호혜,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배려,

심리적 안정, 충동, 기타로 명명하였다(표 2). 또한 분류된 범주들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각 범주에 속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발췌하여 기술하였다.

불이익 회피와 이익으로의 접근

<사례 1 - 남>

“아침에 학교 오는데 옆 학교 애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괜히 쳐다보고 그래서 (중략) 그런데 싸우려다 말았어요, 쪽 팔리지만. 아침부터 괜히 애 했다고 경찰서 끌려갈까 봐요. 그러면 학교에서 별점 쌓이게 되고 귀찮잖아요. 별점 안 쌓이면 선생님이 나를 좋게 볼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취업도 더 잘 될 것이고 (중략) 또 싸우면 나도 상처 나고 짜증나잖아요.”

<사례 2 - 남>

“알바(아르바이트) 한달하기로 했어요. 아빠도 처음엔 허락하고. 그런데 아빠가 5일 남겨두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한달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 뒀지요 뭐. 아빠가 되게 엄하거든요. 권위주의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행동하는 식이

예요. 진석(Kohlberg의 표준화된 딜레마 중 Joe의 딜레마를 의미)이처럼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돼요. 안 그러면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장난 아니죠.”

상호호혜

<사례 3 -여>

“몸도 아프고 학교가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갈까 말까 했는데 결국 왔어요, 지각은 했지만. (중략) 담임과 학교 안 빠지고 잘 다니기로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담임선생님과의 약속이 왜 중요하지요?) 담임이 나한테 잘 해주는 만큼 나도 잘 해주어야지요.”

<사례 4 -남>

“친구랑 놀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때 집에도 일이 있었어요. (중략) 그냥 친구한테 갔어요.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저랑 평생 같이 할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요. (중략) 내가 힘들 때 친구가 옆에 있어 주고, 돈 부족할 때도 친구가 주고, 내가 힘들어 울 때도 친구가 위로해 주고. (중략) 여자친구랑 친구랑 약속이 겹치잖아요. 그럼 그 때도 친구한테 가요 친구가 제일 좋아요.” (중략)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배려

<사례 5 -남>

“지난번에 학교 며칠 안 다녔거든요. 마음 잡고 학교 좀 잘 다니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욕을 했어요. 때려치우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울면서 학교 잘 다니라고, 졸업 이라도 하라고 해서. 갈등했지만 엄마 부탁 때문에 마음 좀 고쳐먹고 다시 다녀요. (중략) 엄마가 불쌍해 보였어요, 우는데. 학교 잘 다녀서 부모님 호강시켜...”

<사례 6 - 여>

“부모님이 이혼했거든요. (중략) 처음엔 어린 마음에 부모랑 떨어져서 사는 게 싫어서 반대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부모가 있는데 난 엄마 없이 아빠랑 사는 것이 그렇잖아요. (중략) 나중에 엄마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엄마 인생 사시라고 찬성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 했어요.”

심리적 안정

<사례 7 - 여>

“지난번에 학교 빠지고 친구랑 놀러간 적이 있는데 엄마한테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요 나중에 얘기했어요. (중략) 얘기 안하면 마음도 불편하고 엄마가 나중에 알게 되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엄마는 내가 학교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섭섭해 하니까.”

<사례 8 - 여>

“진석이처럼 아빠가 놀러 가는 것 약속했던 것에 대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적이 있어요. (중략) 아빠한테 잘 얘기해서, 나는 정말 가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중략) 아빠한테 이해하도록 말하니까 아빠가 나중에는 허락했어요. (그냥 가지 않고 허락을 받고 간 것은) 내 맘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빠를 설득했어요.”

충동

<사례 9 - 여>

“친구랑 놀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해서 아프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중략) 친구랑 한 시간 쯤 더 놀다가 들어갔어요. (중략) 그냥 친구랑 더 놀고 싶고, 집에 들어간다고 엄마가

아픈 게 낫는 것도 아니고. (중략) 재밌었어요, 엄마한텐 좀 미안했지만.”

<사례 10 - 남>

“학교 오는 길인데, 아침에, 친구들이랑 게임방 가서 한 게임만 하고 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계속 놀았어요. (중략) 그냥 단순히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중략) 반복되는 생활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범위에서 벗어난 일하고 싶어서. (중략) 나중에 선생님, 엄마한테 혼났지요. 예상했지만 게임이 너무 좋았고 애들이 다 그냥 혼나고 말자고 얘기해서 갈등 안하고 그냥 (학교를) 빠졌어요.”

기타

<사례 11 - 남>

“학교 다니기 싫었는데 가까스로 다녔어요. 내가 선택했으니까요. (중략) 내가 놀았던 것 세상에 복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니려고 생각해요. (중략) 전에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만나자니까 정신 차리고 나한테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구요. 시간 아깝다. 지금 까지 놀았던 것이 후회된다. 대학 가려면 시간 없다면서 너도 남에게까지 피해주지 말고 너 혼자 피해보려면 봐라. 너랑 꿈틀거릴 시간 없다. (중략) 자존심이 너무 상하게 얘기해서 나도 정신 차렸어요. 아직까지 지각은 많지만 적어도 결석은 없앤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니려고요.”

요약하자면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를 겪는 참가자들이 직접 경험한 딜레마 상황 및 그 상황에서 선택한 행동에 대한 근거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Kohlberg의 가상적 딜레마를 사용하

여 측정한 도덕판단과 실생활에서 경험한 딜레마에서의 판단을 분석한 결과는 비교, 종합하여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도덕발달 단계, 도덕지향, 그리고 실제 경험한 딜레마에 대한 도덕판단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이후 이 세 부분에서 논의된 점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도덕발달 단계

우선 연구문제 1에 대한 응답으로 본 연구에 참가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의 도덕발달 단계는 2/3단계 및 3단계에 걸쳐 분포하며 그 평균은 3단계로 나타났다. 2/3단계라 함은 2단계가 완성된 이후 3단계로 넘어가려는 과도기적 단계로 위의 두 단계의 특징이 혼재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 단계에서는 2단계의 특징인 자신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이익에 따른 판단(구체적 상호호혜 단계: 내가 내 등을 긁어준다면 나도 네 등을 긁어주겠다. 이것은 공평하고 옳은 일이다)과 3단계의 특징인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판단(이상적 상호호혜 단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이 함께 나타남으로써 두 단계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발달단계의 특징에 비추어 본다면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단결석 · 조퇴 · 지각 및 교칙 위반 등의 문제를 보이게 된 이유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즉 그 이유

로 자신의 쾌락 및 욕구 충족(2단계) 또는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 특히 그들이 속해 있는 또래 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의 인정(3단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발달단계로 미루어 보아 그 두 가지 중 후자의 이유를 더욱 선호할 것으로 추측된다. 도덕발달 단계의 결론을 통해 추론된 내용은 그들의 도덕 지향의 사용경향 및 실생활 딜레마 분석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이한 점으로는 대다수의 부적응 및 비행 청소년이 2단계에 속한다는 선행 연구(예, De May, 1994, Travecchio, Stams, Brugman & Thommer-Bouwens, 1999에서 재인용)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2단계에 해당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두 연구결과 간에 정확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의 부적응 정도가 선행연구의 참가자들에 비해 그다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서는 범법 등의 보다 심각한 비행 및 문제행동을 보인 청소년들과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 그 결과를 통해 확인되어져야 할 것이다.

도덕지향

연구문제 2와 연관하여 도덕지향의 사용정도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이기적 결과 지향을 제외한 나머지 지향들을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다른 집단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선행 연구들과의 간접적인 비교를 통해 이들의 사용 경향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하였다. Baek(1999)은 7세에서 16세까지의 아

동들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기적 결과 지향은 덜 사용하는 동시에 다른 지향들은 골고루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역시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이기적 결과 지향의 사용이 다른 지향 사용에 비해 적다는 것은 Baek의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뒷받침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외의 지향들은 거의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고등학생 이후에는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덕지향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Walker, 1991)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백혜정, 이순묵(2002)은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경우 같은 연령대의 적응 청소년에 비해 이기적 결과 지향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부적응 학생들의 도덕 지향 사용 경향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같은 연령대의 다른 성향을 가진 집단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험한 딜레마에 대한 도덕 판단

연구문제 3에 의거하여 학교생활에서 부적응 하는 학생들이 실제 경험한 딜레마 상황들을 살펴본 결과 비단 학교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생활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겪는 갈등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가정에서 경험한 딜레마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에서, 특히 부모와 가장 많이 부딪히며 그 관계 속에서 도덕적 갈등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르바이트 상황에서의 딜레마 경험은 특이한 점으로 이는 대학입시 준비에 매달리는 일반 고등학생들

과 달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은 이들로 하여금 아르바이트 같은 학교외의 생활에 몰두하게 하며 이는 다시 학교생활에 점점 더 흥미를 잃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그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딜레마 상황에서의 선택근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발달단계와 연관하여 살펴보면 선택근거 내용 중 자신에게 보다 구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2단계적 판단과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여 인정을 받으려는 3단계적 판단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불이익 회피와 이익으로의 접근 근거 및 상호호혜적 근거에서 그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례 1>의 경우 응답자는 또래와 싸움을 하지 않은 이유로 별점, 선생님의 불인정, 취업에서의 불리함, 신체의 상처 등을 들었다. 여기서 신체적 상처나 별점 등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보상 및 처벌에 의존하는 2단계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취업에서 유리하게 만든다는 판단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 및 사회에서의 인정을 추구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함으로써 3단계적 판단의 특징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단계의 특징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Kohlberg의 채점 기준(Colby & Kohlberg, 1987)에 따라

2/3단계적 판단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또한 <사례 3>의 경우에서 담임선생님이 잘해 주는 만큼 자신도 담임선생님에게 잘해주어야 한다는 판단 역시 Kohlberg의 채점 요강(Colby & Kohlberg, 1987)에 따라 도구적 교환(2단계)과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의 감사나 은혜에 대한 보답(3단계)의 중간으로 2/3단계에 해당하는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사례 4>는 문용린(1992)이 주장하는 3단계적 도덕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3단계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도덕 덕목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할 때 그것들을 제대로 “교통정리”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주변의 친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려다가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사례 4>의 경우 친구와의 약속이행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이행이라는 덕목들 간에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의 중대성 정도에 상관없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의 부름에 무조건 응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친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또는 동조를 위해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연구문제 4와 연관될 수 있다. 즉 실제 경험한 딜레마 상황 분석결과들은 응답자들이 2/3단계 또는 3단계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가상적 딜레마에 대한 도덕판단 발달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인지적 도덕 판단과 실제 도덕 행동간에는 연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예, Walker et al., 1987)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연구 문제 5와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배려, 마음의 안정, 그리고

충동에 따른 결정은 도덕 판단 및 행동에 있어서 인지적 사고 외에 다른 요소를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도덕 판단 및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배려를 든 것은 도덕적 판단 및 행동에 있어서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도 함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예, Eisenberg & Miller, 1987)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대방에 대한 배려내지는 공감에 따른 상황결정은 자신의 부모 등 그 대상이 자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Kohlberg의 이론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 판단 및 행동을 위해서는 그들의 관심 대상 영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공감 및 배려의 대상이 자신의 부모나 친구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보다 넓은 사회 구성원들에게까지 확대될 때 한층 성숙한 도덕 판단 및 행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을 이르기 위해서는 후속연구로서 배려 대상의 영역과 도덕 판단 및 행동 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가 뒷받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심리적 안정을 딜레마 상황에서의 선택 근거로 제시한 경우 응답자들은 대부분 도덕적이거나 친사회적 행동을 선택한 경향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충동을 선택 근거로 제시한 경우에는 비도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은식, 김충희(2002)의 연구에서 정의한 심리적 안녕이란 개념에 기초하여 개인들의 심리적 안정 추구 수준과

충동 수준을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즉 위의 두 결과에 대해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를 누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지양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심리적 안녕에 그다지 큰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역시 선행 연구들(예, 문은식, 김충희, 2002; Gibbs et al., 1992)의 주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들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논의점들을 종합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들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딜레마상황에서의 판단 및 행동은 Kohlberg의 이론에 기초하여 측정된 그들의 인지적 도덕판단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지적 판단 수준 외에도 Kohlberg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른 요인들이 그들의 도덕적 판단 및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기타 요인들로는 정서적 측면이나 심리적 안정, 충동 등 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으로는 비록 심층면접 연구라 하더라도 적은 인원을 대상을 한 질적 연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다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 중 외현적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로 그 연구 대상자를 제한한 것은 본 연구결과를 외현적 문제를 보이지 않으면서 부적응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도덕 특성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연관하여 본 연구가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를 지닌 청소년 중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단일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또 다른 제한점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들의 도덕 판단 및 행동에 대한 보다 명료한 설명을 위해서는 다양한 적용 수준을 가진 집단간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다루지 못했던 점 역시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검사지나 연구자에 의해 창안된 딜레마가 아닌 연구 대상자들이 실제 경험한 딜레마를 바탕으로 그들의 도덕 판단 및 행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김기태, 류기형, 최선희, 최송식, 최인숙, 조덕자, 박봉관, 서덕웅, 오홍숙, 양주근 (1996). 학교 부적응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 프로그램 연구.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 6, 199-266.

문용린 (1992). 청소년 심리학. 한국 청소년 연구원.

문은식, 김충희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 219-241.

박병희, 장경준, 신지용 (1996). 주제정의검사(Defining Issues Test)를 사용한 비행청소년의 도덕발달

- 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5, 594-602.
- 백혜정, 이순묵 (2002). 학교 적응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도덕판단: 도덕발달 단계 및 도덕 지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 57-79.
- 정향인 (1989).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인지발달수준과 도덕판단력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ek, H. J. (1999). *Children's moral development examined through Kohlberg's hypothetical dilemmas and f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 Baumrind, D. (1978). A dialectical materialist's perspective on knowing social reality. In W. Damon (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Moral development* (No. 2, pp. 61-82). San Francisco: Jossey-Bass.
- Baumrind, D. (1986). Sex differences in moral reasoning: responses to Walker's (1984) conclusion that there are none. *Child Development*, 57, 511-521.
- Blasi, A. (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 1-45.
- Colby, A. & Kohlberg, L. (1987).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Vols. 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and related capacities. *Psychological Bulletin*, 94, 100-131.
- Gibbs, J. C., Basinger, K. S., & Fuller, D. (1992). *Moral maturity: measuring the development of sciomoral reflec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 Belenky, M. F. (1980). A naturalistic study of abortion decisions. In R. L. Selman &

- R. Yando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Clinical-developmental psychology* (No.7, pp.69-90). San Francisco: Jossey-Bass.
- Gregg, V., Gibbs, J. C., & Basinger, K. S. (1994). Patterns of developmental delay in moral judgment by male and female delinquents. *Merrill-Palmer Quarterly*, 40, 538-553.
- Higgins, A., Power, C., & Kohlberg, L. (1984). The relationship of moral atmosphere to judgments of responsibility. In W. M. Kurtines & J. L. Gerwirtz (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pp. 74-106). New York: Wiley.
- Hoffman, M. L. (1976). Empathy, role-taking, guilt, and development of altruistic motives. In T. Lic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ur: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 (pp. 124-143). NY: Holt, Rinehart & Winston.
- Kohlberg, L., Scharf, P., & Hickey, J. (1971). The justice structure of the prison-a theory and an intervention. *Prison Journal*, 51, 3-14.
- Masten, A. S. & Coast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American Psychology*, 53, 205-220.
- Nelson, J. R., Smith, J. J., & Dodd, J. (1990). The moral reasoning of juvenile delinquents: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231-239.
- Smetana, J. G. (1990). Morality and conduct disorders. In M. Lewis & S. Miller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p. 157-179). New York: Plenum Press.
- Tappan M. B., Kohlberg, L., Schrader, D., Higgins, A., Armon, C., & Lei, T. (1987). Appendix: Heteronomy and autonomy in moral development: two types of moral judgments. In A. Colby & L. Kohlberg (Eds.)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vol. 1): Theoretical foundations and research valid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rnton, A. & Reid, R. L. (1982).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role of understanding in conduct, *Developmental Review*, 1, 410-402.
- Traveccchio, L. W. C., Stams, G. J. J., Brugman, D., & Thommer-Bouwens, M. A. E. (1999). Moral judgment and delinquency in homeless youth. *Journal of Moral Education*, 28, 63-79.
- Walker, L. J. (1989).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57, 522-526.
- Walker, L. J. de Vries, B., & Trevethan, S. D. (1987). Moral stages and moral orientations in real-life and hypothetical dilemmas. *Child Development*, 58, 842-858.
- Walker, L. J. & Moran, T. J. (1991). Moral reasoning in a communist Chinese Society. *Journal of Moral Education*, 20, 139-155.

Qualitative study on the moral judgement and behaviour of maladjuste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their experienced moral dilemmas

Hye-Joeng Baek
Dongduk Women's University

Soonmook Lee
Dep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plore the moral judgments and behaviour of the 25 maladjuste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on their experienced moral dilemmas based on Kohlberg's theory of moral judgment. We examined not only the contents of the experienced dilemmas but also the selected behaviour and the reasons through the qualitative analyses. Also, we explore how the moral judgments and behaviour in the experienced dilemmas relate the assessed moral judgements using Kohlberg's hypothetical moral dilemmas, Form A. As results, the students have experienced moral dilemmas in various areas and their moral judgments and behaviour on the experienced dilemmas are similar to the moral judgment on the hypothetical dilemmas. In addition, other aspects such as emotions, psychological stability and impulse, which Kohlberg was not aware of, also seem to have influence on their moral judgments and behaviour.

Keywords: Kohlberg, moral judgments, moral behaviour, moral dilemma, Maladjusted students